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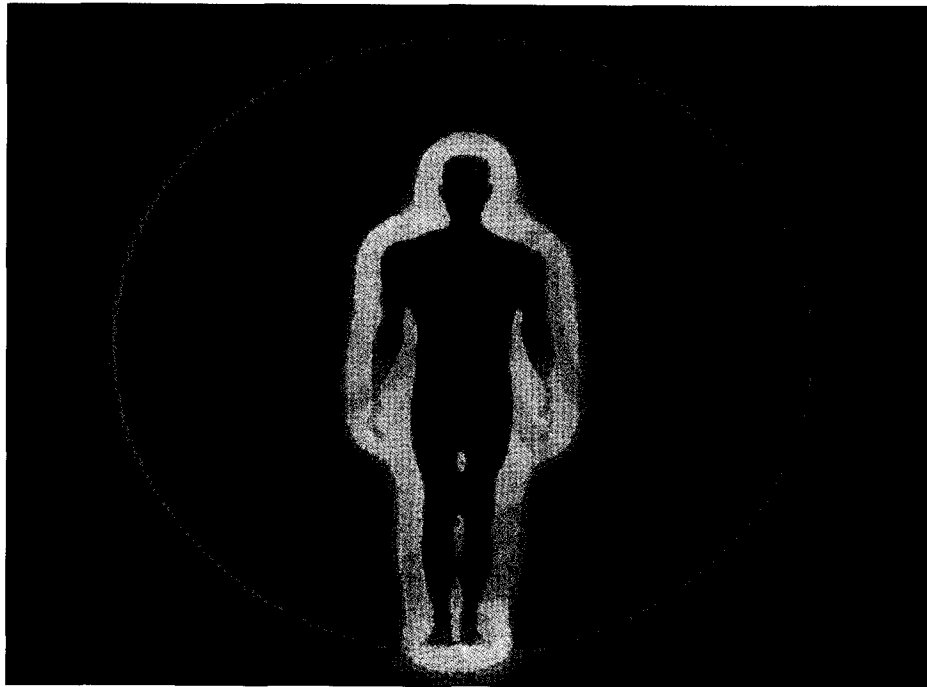
광속의 시대에 가장 원시적으로 걷는다



김이아

시인/월간 사람과 컴퓨터 편집장
yih@channeli.net

나? 갑자기 지아를 찾는데 잘 찾아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길거리(?)에 있었기 때문일까? 이거 다시 하면 나는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쓰러질 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도 버텨적거리고 살아있다. 하지만 이왕 발을 들였으니 잘 봐야지 하는 오기가 지금 나를 끌고 간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빠르다. 아니 내가 너무 느리다고 해야 옳을까. 모든 것은 속도감을 갖고 있다. 자동차로 속도를 빚댄다는 것은 전근대적이다. 통신의 속도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 '초'라는 접미사가 붙는 것은 으레 통신 용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위용은 벤처 열풍보다 당당하게 다가오는 것도 같다.

이제 시골 거리에서조차 갓 쓰고 한가로운 팔자 걸음을 보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는가. 사람들 역시 '초' 뭐가 될 만큼 발걸음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발걸음만 빨라진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느린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

에스컬레이터는 뛰면 위험한 곳인데도 느린(빨리 걸지 않는) 사람은 아예 오른쪽으로 몰아붙여 놓고 왼쪽으로는 사람들을 돼지 몰이하듯 뛰게 만들어 놓았다.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빨리 빨리병'이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번창시켰다는 말만큼이나 맹랑하기만 하다. 급하면 계단으로 떨어질 일이지 하필 에스컬레이터까지 뛰라고 일렀는가.

그런 환경에 익숙해진 것인지 낡은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너무 느려 차라리 계단으로 뛰고만 싶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왼쪽으로 부리나케 뛰어가는 사람들처럼 계단으로는 뛰고 싶지가 않다. 이게 무슨 심보인가. 뭔가 수상하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급한 김에 버스에서 뛰어 왔다는 말이 있긴 했지만 이거야 말로 앞뒤가 짝 막힌 '나' 아닌가. '에에라 가다 못 가면 에에라 쉬었다 가지' 하던 그 노래, 이제 귓가에서조차 사라졌는가. 느긋하게 공원을 산책하며 머릿속에 아름다운 기억을 잔뜩 집어넣고 돌아오던 그곳에



서 나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아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싶다. 남들이
필 때면 허겁지겁 맨 뒷줄이라도 섰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약한 자의 머리채라도 잡
고 경쟁자를 따돌렸어야 하는 것이다. 그
리고 사랑이나 뭐 그 따위 것들도 필요 없
었고 어떤 경우든 수지 타산만 맞는다면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남들이 땅 투기를 할 때는 '과부 땀뱃' 이
라도 얻어 땅을 사야 했고 요즘 같으면 없
는 돈도 끌어들이며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힘들고 휴일에 쉬지도 못하는 편집장이라
는 직함은 웃으면서 사양하고 증권사 매장
에서 몇 시간 어슬렁거리다가 눈치를 보아
꽤 잘 나가는 녀석이 하는 대로 한번 대박
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니면 벤처 기업이
랍시고 뭐 하나를 하든가.

하지만 나에게는 무엇 하나 가당찮은 게
없다. 거기에 신경을 쓸 때마다 눈앞이 아
득할 정도로 나는 너무 어수룩하지 않은
가. 차라리 안 되는 글이나 끄끄러리다가
한잔 술에 팽 돌아 버린다면 모를까.

집에서는 아직도 모뎀을 사용한다. 회사
에서는 전용선을 쓰고 있지만 웬지 모르지
만 모뎀으로 연결할 때가 더 편안하기만
하다. 간혹 중간에 끊기는 것 때문에 마음
을 상하면서도 그렇다. 몇 십 메가바이트
나 되는 것을 받으려고 밤새 노트북을 켜
놓을 때면 어김없이 그 다음달 전화요금
이 배로 불어나는 때도 있긴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내가 이상하
다.

그게 아닐 것이다. 전용선을 쓰면서도 더
서두르고, 집에서는 찬찬하기만 하던 내가
뭔가 불안해하는 사무실 속의 내가 더 이
상한 것 아닌가. 그뿐만은 아니다. 모든 곳

에서 나는 이 광속의 세상을 살기에는 부
적절하다. 아직도 나는 광속의 시대에 가
장 원시적으로 걸어갈 때 마음의 평온을
느낀다. 숲이 그럽고 맨 땅이 그럽다.

질주하는 군중 속에 홀로 남은 듯한 나.
그러나 외롭지는 않다. 조금씩 그들과 나
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므로. 차라리 그
들과 나의 위상이 180도 이상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예 그들로부터 이탈하여
나 홀로 천천히 걷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남긴 질척질척한 길에 마지막으로 내 발자
국을 남기고 간다는 것 또한 아주 못할 일
도 아니지 않은가.

나는 황학주 형의 이 시로 위안을 삼는다.

버스를 기다린다

밤 두 시 비로소 불을 끄고
아주 조그맣게 남아서

한쪽으로 쓸쓸한 꽃 같은 기도를
오래오래 가슴에 안기며
내 빈 방의 구겨진 길로 달려오는
환한 차창의 버스를 기다린다.

졸부리 밑 같은 제일 낮은 데를
홀로 적시고 있는
이 진창, 이렇게 어둠 많은 데를
그리운 이여 찾아오고 있는지
밤 두 시 늦은 버스를 기다리면
묵묵히 견디고 있는
졸씨 파룬힌 마음 언저리
말이 되지 못한 채
사랑이 외로워지고
때론 모래를 등에 업은 듯
세월의 허전한 자취들이 무거워
세상을 다 헤매는 듯하다

해명되지 않는

삶의 틈서리에 앉아
이 밤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자의
뒷등을 따뜻이 덮어 줄 이여
혹 같은 살 한 줌의
그리움이 깊고 부드러우면
이런 시간엔 반드시 어디쯤에서
내 사랑을 기다리게 된다
아직은 기질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사랑.

-황학주

'나는 밤 두 시에도 버스를 기다린다' 전문
KCRC

Humor

ONE - 옛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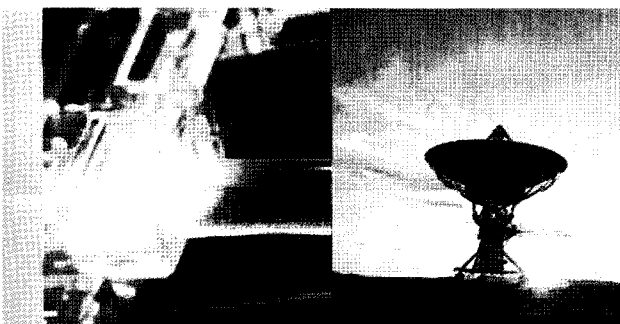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발이 묶인 여자와
그것을 도와주려고 자동차를 멈춘 남자의 대화

W : 고마워요..
저는 차에 관해서는 도무지 모르거든요
M : 그럴테죠, 이거야 어디 부인네들이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W : 이제 다 됐군요,
제발 제을 살살 내려 주세요,
남편이 뒷자리에서 낮잠 주무시고
계셔세요.

TWO - 사람들이 가장 좋아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세균이 득실거리는 것 두가지는?

글 5516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빠르다.
아니 내가 너무 느리다고 해야 옳을까.
모든 것은 속도감을 갖고 있다.
자동차로 속도를 빚낸다는 것은 전근대적이다.
통신의 속도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